

건설기계업 '일감 전쟁'

광주시연합회 "단협으로 수주 막나" 민노총 규탄

민노총 "시연협회 담합에 노조원들 생존권 위협"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굴삭기·크레인·덤프 트럭 등 중장비 사용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전국건설기계 광주시연합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두 단체의 대립이 자칫 건설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건설기계 광주시연합회는 13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소속 노조원들만 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 측이 발주처인 기초자치단체와 시공사인 해당 업체를 압박해 소속 노조원의 장비만 사용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어 민주노총에 속하지 않은 일반 사업주의 일감을 빼

앗아 갔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 소속 회원 700명이 참여했으며 굴삭기 20여 대와 방승선전용 차량 30여 대가 동원됐다.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가 구의원을 앞세워 광산구 하수도사업 시공사에게 단체협약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원 장비만을 사용해 달라는 요구에 비노조원인 건설기계 사업주들의 일감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건설노조가 건설사를 압박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노조 노조원들만 순번제로 일을 나눠 갖게 된다"며 "광주 선운지구와 참산2지구 조성공사의 경우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집단행동을 하고 노조원들만 작업을 시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자체와 경찰이 이를 방치할 경우 건설현장은 법의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광산구가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측은 시연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지부 관계자는 "시공사 측과 (우리) 소속 노조원의 장비만을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시연협회 측이 주장하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단체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리러 시연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자기들끼리 담합해 건설기계지부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는 현재 관내 석계·명하·칠성·분토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최근 입찰을 통해 S·T·K사 등 6개 시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측은 7개 지구 중 석계·명하·칠성·분토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3개 시공사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종형기자 golee@r



전국건설기계 광주시연합회 소속 회원 700명이 13일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 앞길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체류자 단속 사전에 고제·광역화 인명사고 막고 인권침해 시비 줄인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3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권 침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방식을 광역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수지역에 의한 불시 단속이 고용주와 불법체류자의 반발로 인해 인권침해 시비 등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속 변경방침에 따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리 단속 예정지를 고지하고 광역별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기존 사무소별로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또 지역 산업단지 등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고용 중단과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지난해 말 17만7000명에 서울해 말 20만5000명, 2014년 말 22만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

꽃샘추위, 내달초까지 간다

'롤러코스터' 날씨 변화...건강관리 주의 요구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진다. 또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이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변화도 예고돼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이 13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날 말부터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초순 기온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월 초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중

순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23~44mm를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이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1981~2010년) 측정된 광주의 평균 기온은 11.1도로 최고 기온 17.4도, 최저 기온은 5.6도를 기록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 부담 놓고

광주시-자치구 '예산 갈등'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가 가로등 유지·관리 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광주시 광산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제정된 '광주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3만2810본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광주시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관리해야 하는 가로등만 ▲동구 1743본 ▲서구 7442본 ▲남구 2740본 ▲북구 9045본 ▲광산구 1만1840본 3만개가 넘는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가로등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개 자치구가 지불한 가로등 전기 요금만 26억8559만원에 이르고 전기 요금을 비롯, 유지·관리 비용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광산구 등 기초

자치단체가 광주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다. 이들 자치단체는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공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5개 자치단체는 특히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41조를 내세워 광주시의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 경우 지난해 3월 관내 광암 고가와 북광주 IC에 설치될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 이관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반면, 광주시는 LED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자치구 업무인 보조등 설치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성격을 띤 가로등 유지 보수 업무는 자치구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조선대 부총장에 박해천 교수 임명

조선대학교 부총장에 박해천 대학원장(산업공학과)이 임명됐다.

조선대는 부총장 임명권자인 서재홍 총장이 13일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남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의적격 심사를 통과한 박 대학원장을 부총장에 선임했다. 이로써 부총장과 임명권 관련 5개월여의 논란이 일단락됐으며, 박해천 신임 부총장은 2년간 부총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박해천 부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총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처 간의 재반 업무를 조율

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천 부총장은 학생처장과 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중앙노동위원·광주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애로기술 및 경영자문위원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술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5분
해질 18시 39분

달돋이 07시 45분
달질 21시 12분

구름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광주	구름많음	0/11C		
목포	구름많음	-1/8C		
여수	구름많음	4/9C		
나주	구름많음	-2/12C		
완도	구름많음	0/10C		
구례	구름많음	0/12C		
강진	구름많음	-1/10C		
해남	구름많음	-2/10C		
장흥	구름많음	-1/11C		
순천	구름많음	0/10C		
영광	구름많음	-2/9C		
진도	구름많음	-1/9C		
전주	맑음	-1/11C		
군산	맑음	-2/9C		
남원	맑음	-3/11C		
혁신도	구름많음	2/6C		

구분	종량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노출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구분	종량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목포 03:44	08:5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15:58	21: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여수 10:40	04: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22:58	16:39

◇주간날씨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0/13	2/15	4/16	8/16	7/18	6/17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우유주사' 유명 연예인 기소

현영은 벌금 500만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연(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예인 현영(37)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문은 B(46)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L(33)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박씨 등 연예인 3명과 유혹업 종사자 G(2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씨와 이승연 소속 기획사 대표 L(38)씨, 주부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 등을 받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여수 등 5개 도시

환경소음 개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도시의 환경소음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균 소음도는 낮 시간대 56dB, 밤 시간대 48.5dB로 조사됐다.

도로변 낮 시간대는 64.3dB, 밤 시간대 56.6dB 등으로 2011년과 비교해 평균 0.7~2.4 dB이 개선됐다. 환경소음은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자동차 경적, 공장 가동 소리 등 모든 소음을 말하는 것으로 심하면 난청, 대화 장애, 심리불안, 정신병, 행동장애 등을 일으킨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거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위인

고려명장 문하시중 김취려사료집 출판기념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열공(김취려)장군 사료집 출간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각계 각종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출판기념회를 갖게 하오니 함께하시어 빛내주시면 합니다.

오시는 모든분들께 오찬과 사료집 및 기념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위열공(威烈公) 尉(諱) 취려장군
(威顯將軍 1172~1234) 영정(影幀)(전쟁기념관 봉안)

일시 | 2013년 3월 19일(화) 10:30~14:30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2·3홀)

주최 | 안양김씨 선양사업 추진위원회

주관 | 안양김씨 광주광역시 종친회

안양김씨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안양김씨 광주광역시종친회 회장 김경녕

문의 062)524-6622, 010-2972-2357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